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 절도 혐의 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쳐 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신청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적이 없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바도 없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명예훼손 사례 2


■ 입찰 관련 의혹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신문사는 복합상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이 조사를 이례적으로 설계가보다 높게 제시해 모 대기업이 낙찰됐다고, 이에 대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조사를 입찰 전에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입찰하므로 커넥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나 잡지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나 싶은 사항까지 언급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련자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고 배워 재발하는 위험까지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을 체감합니다. 지난 9월 호 기획특집 '시정권고' 내용을 읽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차준호)
-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의료중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으며 또한 제 주변 사람들도 생소해 했습니다. 둘째는 의료중재원이 조정과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최병갑)
-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기고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나 한국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역사의 현장들을 현재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데는 당시 기자나 역사가가 쓴 '글'과 그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사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순간의 생생함이나 역사를 남기려 하는 자의 노고와 어려움 또한 내 초상권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인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훌륭한 기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지)